그리움 꾹꾹 담아 추억을 노래하다

100회 맞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가곡 사랑하는 이들 2008년 첫 행사
작곡가·성악가 초청, 이웃 돕기 공연
매월 둘째주 금요일 K아트센터 진행
15일 광주문예회관서 100회 음악회

▶2008년 첫발을 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매월 둘째주 금요일)가 7월 100회를 맞는다. 사진은 2008년 6회 행사 모습.

'우리말의 보물창고'인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로 이루어진 한국 가곡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학창시절 음악 시간, 친구들과 다함께 '그리운 금강산'과 '사랑'을 함께 부르는 추억도 갖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곡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한국가곡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난 2008년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를 만들었다. 매월 한 차례씩 모여 함께 가곡을 부르고, 새로운 노래도 배워보는 게 어떨까하는 마음에서였다.

2008년 8월 상무지구 클래식 음악감상실 한울림 에서 첫번째 행사가 진행됐다. 작곡가 정덕기씨를 초청하고, 그의 작품인 '내가 너를 부를 때'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반달', '님이 오시는지' 등 추억의 노래도 함께 불렀다.

사실, 첫회 행사를 준비하는 회원들을 취재할 때 그들의 열정엔 동감했지만 애호가들이 꾸린 단체가 진행하는 행사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을까 걱정 반 의구심 반이었다. 하지만 회원들은 십시일반 비용을 모으고, '내 일' 처럼 행사를 진행하며 작은 역사를 쌓아왔다.

9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가 7월 100회를 맞았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함께 모여 친숙한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새로운 가곡을 배워왔다. '얼굴'의 신귀복, '내맘의 강물'의 이수인 등 유명 작곡가를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김승일, 김광자, 구희영, 국현, 이수인, 황덕식, 이민수 등 등 20여명의 작곡가를 초청했다. 또 가곡에 아름다운 가사를 제공한 전원범, 문병란, 손광은, 허형만 시인 등도 다녀갔다.

그밖에 이환희, 박미애, 노연선, 박경숙씨를 비롯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성악가들의 무대와 광주챔버싱어즈, 빛고을시니어 앙상블, 서구어린이합창단 등 초청 단체 무대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동요를 부르는 아이가 가곡을 부른다'는 생각에 몇년 전부터는 초등학생 꿈나무들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조선대 병원 환우 위문 공연, 노틀담 형제의 집 돕기 공연 등을 통해 매년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곡 부르기 행사의 즐거움은 무엇보다 학창시절 다같이 불렀던 추억의 가곡들을 함께 노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부른 곡은 김동환 곡 '그리운 마음'이었고 임긍수 곡 '사랑하는 마음', 김규환 곡 '님이 오시는지', 변훈 곡 '떠나는 가는 배',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가곡 부르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수장을 맡고 있는 황선욱 회장을 비롯해 박원자, 박진영씨 등 초창기 멤버들의 역할이 컸으며 지도를 맡은 최석부, 박호진씨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2011년 2월 첫 인연을 맺은 후 6년여간 함께 해온 바리톤 김제선씨에게는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담아 100회 행사 때 감사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호신대 T브라운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열어왔던 우리가곡 부르기는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 서광신협 4층 K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열고 있다. 매회 60~80명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가곡을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다.

15일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100회 기념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박계, 박동일씨가 초청 성악가로 참여하며 광주챔버싱어즈(지휘 박호진), '민들레 퀸더 중창단' 우리가곡부르기회원들로 구선된 여성중창단 '꿈오라기', 남성중창단 '우가사 남성솔리스트앙상블'이 다양한 가곡을 선보인다. 또 서울, 부산, 대구, 마산 등 타 지역 가곡부르기 대표들의 축하무대도 이어진다.

특히 100회를 기념해 단체의 역사를 담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9년사(史)'를 발간했으며 황선욱 회장이 매회 들려줬던 이야기를 담은 '가곡 이야기'도 펴냈다.

100회를 넘어 또다른 도약을 꿈꾸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는 앞으로 지역 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자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부회장은 "애창가곡을 한곡씩 갖는다는 건 한 편의 시를 외우는 것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가곡 부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행사는 없으며 9월 8일 101회 행사를 이어간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10-2665-23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의 젊은 음악가들 콘서트+인터뷰' 공연

1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철민

김봄

양신애

김민수

클래식 연주 그리고 연주자와의 인터뷰가 함께 펼쳐지는 '광주의 젊은 음악가들 콘서트 + 인터뷰' 공연이 오는 1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피아니스트 이철민, 비올리스트 양신애, 첼리스트 김민수의 연주와 인터뷰어 송우람의 진행으로 꾸며진다. 세 명의 연주자들은 모두 광주예고 출신의 동기로 모두 독일에서 유학했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Op. 142 No. 3', 요크 보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Op. 54, 다비드 포퍼의 '헝가리안 랩소디'로 채워진다. 2부에서는 세 명의 연주자와 함께 '음악과 연주자의 삶'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번 공연의 기획자이자 피아니스트 김봄은 "클래식 음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어려움'일 것이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음악 자체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연주자에 대한 '낯섦'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티켓 가격 전석 2만 원(학생 할인 50%). 문의 010-9240-105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은암미술관 레지던스 '경양예술길…' 입주작가

나명규·정선휘·정운학 13일 오픈스튜디오

나명규 작 'the Arts Physical Education'

은암미술관의 레지던스 사업 '경양예술 길 창작스튜디오' 올해 첫 번째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와 주민과 함께하는 아트재생 프로그램 행사가 13일 오후 6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예술 골목 계림창작스튜디오' 1기 작가로 참여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나명규, 정선휘, 정운학 작가가 함께한다.

나명규 작가는 조선대, 뉴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대 출신으로 제1회 하정웅미술상을 수상한 정선휘 작가는 제4회 광주 비엔날레 본 전시에 참여했으며 회화와 LED조명을 접합시킨 독특한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다.

정운학 작가는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광주비엔날레, 쾰른아트페어, 북경, 대만등지에서 작품을 발표해왔다.

1기 입주 작가들은 마을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트재생프로그램을 기획, 주민들을 초청한다. 또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8월부터 동네 벽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레지던스 스튜디오는 오래된 한옥을 작가들 창작 공간으로 개조, 입주 작가들이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마을주민들과 교류하는 장소다. 문의 062-231-52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은암미술관이 운영하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레지던스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성완경 교수 초청 현대미술강좌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강좌 네 번째 행사가 11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초청 강사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미술평론가 성완경 인하대 명예교수다. 한국적 리얼리즘의 해법을 민중미술에서 찾고 평론과 전시 기획을 통해 한국 민중 미술운동을 전개해 온 성교수는 이날 '민중미술의 두 얼굴'을 주제로 강연한다.

서울대 미술대학과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한 성교수는 1979년 '현실과 발언' 창립 동인으로 참가했으며 1988년 뉴욕에서 열린 '한국의 새로운 문화운동-민중미술전'의 큐레이터를 맡아 '민중예술'이라는 고유명사를 세계미술계에 처음 소개했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사)부천만화정보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한 성 교수는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 등을 펴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